

내/외집단 범주화된 다수와 소수의 사회적 영향

최훈석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덕웅(1994)이 제안한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다수나 소수가 일관되거나 일관되지 않게 모두 범주화된 조건에서 공격 영향과 사적 영향을 알아 보았다. 내집단 일관 범주화,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내집단-외집단, 외집단-내집단) 및 외집단 일관 범주화된 영향원의 규모가 각각 다수거나 소수인 조건에서 공격 반응과 사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교차 범주화 조건은 내집단-외집단 및 외집단-내집단 범주화 조건을 통한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집단 범주(3), 영향원 규모(2) 및 반응 유형(2)의 3×2×(2) 실험 설계에서 반응 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반복 측정된 혼합요인설계였다. 대인적 타당화가 가능한 확실 과제 조건에서 얻어진 이 실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영향의 크기는 내집단-내집단, 외집단-내집단, 내집단-외집단 및 외집단-외집단으로 집단 범주화한 차례대로 나타나서 사회적 정체성 이론 및 자기 범주화 이론이 지지되었다. 다수는 공격 반응에, 그리고 소수는 사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수/소수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을 예언하는 이중 과정 이론 역시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한덕웅(1994; 정지숙과 한덕웅, 1992)의 선행 연구와도 일치된다. 내/외집단 범주화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점은 사회적 정체성 이론 및 자기 범주화 이론에 유리한 결과로서 해석되었다. 집단 범주화, 영향원 규모 및 반응 유형의 삼원 상호작용은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p < .10$) 예언과 일치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적 영향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상대적으로 타당화하기 위하여 한덕웅(1994; 정지숙과 한덕웅, 1992)은 각 이론의 예언이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연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주장에 근거를 둔 연구에서 집단 정체성 유무, 영향원 규모, 대인적 타당화의 필요성으로 정의된 상황의 확실성 수준, 공격 동조나 사적 태도 수용으로 구분된 사회적 영향의 성질을 고려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인적 타당화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관되거나 비일관되게 내/외집단 범주화가 이루어졌을 때 다수와 소수가 서로 다른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가설들이 설정된 배경을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향원의 내/외집단 범주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이 달라진다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내/외집단 범주화가 도입되면 내집단 선호 편파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점과,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

성을 추구한다는 가정(Tajfel, 1978, 1982; Tajfel & Turner, 1986)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jfel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인식 및 그로부터 야기되는 정서적·평가적 의미들과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자존심을 얻고자 동기화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때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다른 집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지각하는 자기 호의적 사회 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어느 한 집단의 성원이 되면 집단 소속에 대한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보상의 분배나 성과의 평가 등에서 내집단 선호 및 외집단 차별이 유발되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이 내집단 선호 편파는 개인의 자기 개념 중에서 사회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정체성을 통한 자기-고양 책략으로 정의되며

(Turner, 1985), 개인에게 긍정적 정체감을 제공해주는 특수한 기능을 지닌다고 가정된다.

최근에 Turner와 공동 연구자들(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Turner & Oakes, 1989)은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기초하여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을 제안하고, 사회적 영향 과정에 관한 수정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영향원의 범주 소속은 합의 기대와 불확실성 감소 방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정체성과 자기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집단 성원이 존재하게 되면 내집단과 외집단 범주화가 더 특출하게 되며, 자신을 현재 속해 있는 사회적 범주의 대표적 성원이라고 지각하게 되는 자기 고정관념화 과정이 유발된다. 이 상황에서는 개인적 정체성보다 집단적 정체성이 특출해짐으로써 이른바 비개성화된 자기 지각이 촉발되며, 그 결과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개인 특성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 범주의 전형적 특성들의 견지에서 자신을 정의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 범주 소속이 심리적으로 특출해질수록 더욱 규범적으로 행동하게 된다(Hogg & Abrams, 1988).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노출되면 유사한 사람들끼리는 유사한 행동을 보이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의 사회 비교에 적절한 준거 집단, 즉 내집단의 주장에는 동의하는 반면에, 외집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불일치되는 외집단 성원들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자신과 불일치하는 내집단 성원들에 노출되었을 때 더 큰 불확실성과 회의를 경험하게 되며,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어려우리라고 가정된다. 이 주관적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Clark과 Maass(1988a)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토픽에서 외집단과 불일치되는 의견을 지니게 되면 불일치의 원인을 단순히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으로 귀인시킬 수 있는 반면, 내집단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귀인이 곤란하다. 따라서 내집단 성원들과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불일치의 원인이 쉽게 절감될 수 없기 때문에, 내집단 성원들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꿈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정체성 이론과 자기 범주화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내집단 영향원은 외집단 영향원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미

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 장면에서 영향원의 집단 범주에 따른 효과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최소 집단 패러다임에 기초한 내/외집단 구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피험자들이 일단 어느 한 집단에 속하게 되면 다른 집단에는 속할 수 없는 배타적 집단간 상황만을 다루었다. 실제로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은 최소 집단 패러다임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단 하나의 범주에 기초하여 내/외집단 구분이 이루어진다기 보다, 여러 범주들이 서로 교차되는 일종의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하나의 집단 범주에서만 내/외집단 구분이 이루어지는 '단순 범주화' 상황과 둘 이상의 범주에서 내/외집단 구분이 교차되는 '교차 범주화' 상황이 구별되어야 한다(Deschamps & Doise, 1978, p.143-144).

교차 범주화 상황에 착안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단순 범주화 조건과 교차 범주화 조건에서 집단간 차별 현상을 비교했던 연구들(Brown & Turner, 1979; Deschamps, 1977; Deschamps & Doise, 1978; Rehm, Lilli, & Van Eimeren, 1988; Vanbeselaere, 1987), 기존의 내/외집단 구분을 깨고 보다 큰 하나의 상위 집단으로 재범주화함으로써 집단간 차별이나 경쟁이 감소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들(Commins & Lockwood, 1978; 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89), 그리고 집단 성원들을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탈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내집단 선호나 외집단 차별이 감소되는지 알아본 연구(Wilder, 1978, 1986)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서 재범주화나 탈범주화, 또는 교차 범주화를 이용함으로써 집단간 차별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얻어졌다. 최근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다양한 주장들이 개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차 범주화 상황을 이용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주장들의 상대적 타당성이나 예언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Hewstone, Islam, & Judd, 1993). 지금까지 교차 범주화 효과의 심리적 기제로 제안된 대표적 내용으로는, 범주화 및 범주내에서 차이와 유사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둔 설명(Deschamps, 1977; Deschamps & Doise, 1978)과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집단간 차별의 감소나 제거 대신 차별 패턴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설명(Brown &

Turner, 1979)이 대비될 수 있다.

우선 Deschamps와 Doise(1978)에 따르면, 하나의 집단 범주에서 내/외집단 범주화가 도입되면 내집단 성원들끼리는 유사성이 강조되는 과정이, 그리고 외집단 성원들과는 차이가 강조되는 과정이 동시에 촉발되며, 그에 따라서 통상적 외집단 차별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두 범주들을 교차시키게 되면 두 개의 범주에서 내/외집단 소속이 교차되기 때문에, 이 때는 범주들간 차이가 수렴되는 과정과 범주내 차이가 확산되는 과정이 함께 유발됨에 따라서 인지적 갈등이 초래된다. 다시 말해서 두 범주가 교차된 조건에서는 한편으로 각 범주내에서의 유사성과 차이가 동시에 강조되고, 다른 한편으로 각 범주들간의 유사성과 차이가 동시에 강조되므로 상충되는 두 가지 효과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집단간 차별 정도가 감소되리라고 가정한다. 실제로 Deschamps와 Doise(1978, 실험 1)의 연구에서는 32개 특성 형용사를 이용하여 단순 범주화 조건과 교차 범주화 조건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차별 정도를 비교한 결과, '性'이나 연령 범주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서만 내/외집단이 구분되는 단순 범주화 조건보다는 '性'과 '연령' 범주를 교차시킨 조건에서 집단간 차별이 유의하게 감소된 바 있다. 또한 '性' 범주를 인위적인 '색깔 집단' 범주와 교차시켰을 때(실험 2), 수행 평가에서 집단간 차별이 사실상 제거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험에 이용된 두 범주가 심리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실험 조건에 따라서 피험자들이 수행한 과제 of 인지적 복잡성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Brown & Turner, 1979).

한편, 위와 같이 범주 차별화라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설명들에 비해서 Brown과 Turner(1979)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입각하여 동기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집단과 외집단간에 긍정적 차이를 창출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Brown과 Turner는 교차 범주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두 범주 중 어느 한 범주에서라도 피험자의 외집단인 영향원에 대해서는 실질적 차별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이때 차별의 정도는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이중-외집단'(double-out-group)일 경우에 최대가 되리라고 보고, 교차 범주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차별 현상이 가산적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두 범주들의 심리적 중요성이 동등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한, 둘 중 어느 한 범주에서라도 외집단인 영향원은 두 범주 모두에서 내집단인 영향원에 비해서 차별을 받되, 두 범주 모두에서 외집단인 영향원보다 차별의 정도가 약하리라고 가정된다. 결국 이 가정에 따른다면, Deschamps와 Doise(1978)가 제안한 바와는 달리, 교차 범주화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차별의 감소가 아닌 차별 패턴에서의 변화가 초래된다고 해석된다(Hagendoorn & Henke, 1991).

이 연구에서는 영향원이 일관되게 피험자의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과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 그리고 내집단과 외집단이 교차된 범주화 조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회적 정체성 이론 및 자기 범주화 이론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영향원은 일관되게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영향원보다 사회적 영향이 작으리라고 가정했다. 또한 Brown과 Turner(1979)가 제안한 가산성 가정을 받아들여서,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영향원은 내집단에서 외집단으로 혹은 외집단에서 내집단으로 교차되어 재범주화된 영향원보다 사회적 영향을 적게 일으킨다고 가정했다. 즉, 영향원이 반복해서 내집단으로 일관되게 범주화된 조건에서 내집단 특출성이 두드러져서 사회적 영향의 크기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외집단에서 내집단 혹은 내집단에서 외집단으로 일관되지 않게 재범주화된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이 크며,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이 가장 적게 나타나리라고 가정했다(일관-비일관 내/외집단 범주화 가설).

한편, 영향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중 과정 이론과 단일 과정 이론에서 주장되는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중 과정 이론에서는 다수와 소수에 의해 유발되는 영향 과정이 질적으로 다른 점에 착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첫째, Moscovici(1980; Moscovici & Lage, 1976)에 따르면 다수 영향은 다수와 불일치하는 데서 유발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 측이 선호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비교 과정을 통해서 유발되며, 주로 공적 순종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소수 영향은 소수와 불일치하는 데서 유발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가 소수측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

토하는 타당화 과정을 통해서 유발되며, 주로 사적 수용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정지숙과 한덕웅, 1992).

둘째, Mugny와 공동 연구자들(Mugny, Kaiser, Papastamou, & Perez, 1984; Mugny & Papastamou, 1982)은 영향원에 대한 심리-사회적 동일시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대체로 소수는 외집단으로 인식되어서 소수 영향원과 연합되어 있는 평가적 함의들이 부적이기 때문에, 소수에 노출된 다수측 성원들은 소수에 대한 동일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공격 또는 표출적 수준에서는 소수 영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다수에 노출된 소수는 자신들을 스스로 외집단으로 인식하기 쉽고, 따라서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나마 다수 의견에 따르게 된다고 분석한다.

셋째, Nemeth(1986; Nemeth, Mayselless, Sherman, & Brown, 1990)는 주의 집중과 사고 양식에서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질적으로 상이한 영향이 초래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다수는 설득 주장의 내용에 국한되는 수렴적 사고 과정을 촉발시키는 반면, 소수는 보다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인지적 활동을 촉발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중 과정 이론들과 달리 단일 과정 이론은 사회적 영향을 세력에 의한 의존성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영향원의 크기 순서대로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모두 공통되는데,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정지숙과 한덕웅, 1992). 첫째, Latane와 Wolf(1981)의 사회 충격 모형에서는 영향원 수의 증가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는 점진적으로 가중치가 줄어드는 역함수 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사회적 영향이 영향 강도, 영향원 수 및 표적과 영향원의 근접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Tanford와 Penrod(1984)의 사회적 영향 모형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에 기초하여, 세번째 영향원까지는 영향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네번째부터 증가 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S자형 곡선을 가정한다. 셋째, Mullen(1983)의 상대편-비율 모형에서는 영향원 집단에 반대하는 상대편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영향원 집단에 대한 주의 집중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영향력은 전체에 대한 상대편의 비율에 반비례한다고 주장한다.

이중 과정 이론과 단일 과정 이론간의 활발한 논쟁과 더불어, 비교 과정이나 타당화 과정만을 배타적으로 고

려하는 데서 벗어나서 중다 인지 과정을 가정해야 된다는 주장(Chaiken & Stangor, 1987)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단일 과정 이론들에 대해서는 이 모형들이 소수 및 다수 영향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과정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Levine, 1989), 다수는 주로 공격 표출적 수준에서 순종의 형태를 띠면서 영향을 일으키는 반면에 소수는 사적 잠재적 수준에서 주로 행동 변환의 형태를 띠면서 영향을 일으킨다는 점을 차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비판(한덕웅, 1990)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각 독립적인 설계내에서 다수 또는 소수 영향 중의 어느 하나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는 다수와 소수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 비교가 곤란하다. 한덕웅(1994)이 지적했듯이 이 문제는 다수나 소수의 영향 과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설계내에서 내/외집단으로 범주화된 다수 및 소수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집단 범주화된 영향원 규모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덕웅(1994; 정지숙과 한덕웅, 1992)의 선행 연구와 일관되게 이 연구에서도 영향원 규모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이 크리라고 가정하는데, 이 가정과 조화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대로 단일 과정 이론에서는 집단 규모와 영향력의 크기 간에 단순 선형 관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보다 다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언한다. 둘째, 비록 명시적 언급은 없지만 Moscovici를 위시한 이중 과정 이론에서도 소수의 영향력이 다수의 영향력보다 작으리라고 보며, 그 이유를 주로 집단 규모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소수 영향은 주로 다수측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한덕웅, 1990). 셋째,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영향원의 수가 증가되면 피험자는 자신이 외집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여 집단으로부터 배척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다수는 소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향원 규모 가설이 성립될 수 있는 세 이론들에 근거해서 이 연구에서는 소수 영향원보다 다수 영향원이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치리라는 가설을 도출했다(영향원 규모 가설).

한편 자기 독립적인 설계내에서 다수 영향 또는 소수 영향만을 다루는 접근법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제한점은, 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동일시하는 내집단으로부터 내집단 규범에 동조하도록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영향원의 규모와는 독립적으로 내집단 규범에 의해서만 사회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한덕웅, 1994). 따라서 자기 범주화 이론이 타당하다면 영향원이 다수인지 또는 소수인지에 관계없이 내집단 영향원이 외집단 영향원보다 항상 더 큰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처럼 영향원 규모와 집단 범주화간에 상호작용이 없으리라고 가정하는 점은 단일 과정 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즉, 단일 과정 이론에서는 영향원 수의 함수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영향원의 집단 범주에 관계없이 사회적 영향은 영향원의 크기 순서대로 크게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영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영향원의 집단 범주와 규모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덕웅(1994)의 연구에서는 내집단 정체성이 형성된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다수와 소수의 영향을 비교한 결과, 내집단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다수와 소수 영향의 크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내집단 정체성이 형성된 조건에서는 다수가 소수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유발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 범주화 이론 및 단일 과정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달리, 영향원의 집단 범주와 규모간에 상호작용이 있으리라고 가정했는데,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영향원이 반복해서 피험자의 내집단으로 범주화됨으로써 내집단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 조건에서는 소수로부터 받는 압력보다 다수로부터 받는 압력이 더 크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수 영향보다 다수 영향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예언된다. 반면에, 영향원이 반복해서 피험자의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과 내/외집단 범주가 교차됨으로써 범주 구분의 특출성이 약해진 조건에서는, 영향원 규모에 따른 효과에 영향원의 집단 범주에 따른 효과가 능가적으로나 가산적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향원이 일관되게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는 다수 영향원이 소수 영

향원보다 사회적 영향을 크게 일으키지만, 내/외집단이 교차 범주화된 조건과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일으킨 사회적 영향의 크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리라고 가정된다(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가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일 과정 이론에서는 다수 및 소수 영향이란 영향원 규모의 함수로 나타나는 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응 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도 동조란 내집단 동일시에 따른 사적 수용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공격 동조와 사적 수용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이중 과정 이론들 가운데 Nemeth의 주장을 제외하면, Moscovici나 Mugny 등은 모두 공격 반응과 사적 반응의 차이에 주목하여 다수와 소수의 영향이 질적으로 달리 나타남을 가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수 영향에서는 사회적 승인(Mugny, 1982), 배척감 회피와 비교 과정(Moscovici, 1980) 등의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므로 다수는 사적 반응보다 공격 반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소수 영향에서는 소수와의 의견 불일치로부터 유발되는 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타당화 과정(Moscovici, 1985), 소수 행동 스타일의 함수로 나타나는 확실성, 확고부동성 및 자율성 귀인(Moscovici & Lage, 1976), 그리고 체면 유지(Clark, 1988a, b; Mugny, 1982)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소수는 공격 반응보다 사적 반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다수 및 소수 영향 과정에서 작용하는 세부 요인들이 반응 유형을 기준으로 각각 달리 작용한다고 보고, 선행 연구들(한덕웅, 1994; 정지숙과 한덕웅, 1992)과 일관되게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을 가정했다. 즉, 다수 영향원은 사적 반응보다 공격 반응에서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수 영향원은 공격 반응보다 사적 반응에서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가정한다(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가설).

한편 반응 유형에 따라서 다수 및 소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은 앞서 언급했던 내/외집단 범주화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즉, 이중 과정 이론에서 다수와 소수 영향원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가정하는 동기 요인들과 영향 과정을 검토해 보면, 내/외집단 범주화에 따른 효과 역시 반응 유형에 따라

서 달리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중 과정 이론에서 다수 영향의 주된 요인으로 주장되는 사회적 승인, 배척감 회피 및 고립 회피 동기와, 영향 과정으로서의 비교 과정 등은 내집단 영향원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 요인 및 영향 과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내집단 규범에 부동의를 표하거나 그로부터 이탈된 반응을 보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공적 반응에서는 내집단 영향원의 의견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반응의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적 반응 조건에서는 이탈자로 드러남으로써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고립될 위험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내집단 영향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내집단 영향원은 사적 반응보다는 공적 반응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조 압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영향원이 일관되게 피험자의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 공적 동조의 압력이 가장 크리라고 예상되며,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교차되어 범주화된 조건 및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의 순으로 공적 동조 압력이 적으리라고 가정된다. 반면에 사적 반응의 경우에는 주로 공적 동조와 달리 외집단 영향원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하리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은 특히 소수 영향 장면에서 사적, 잠재적 또는 지연된 태도 변화 측정치를 이용했을 때 내집단 소수와 외집단 소수의 영향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외집단 소수가 내집단 소수보다 더 큰 영향을 보인 연구들(Aebischer, Hewwstone, & Henderson, 1984; Martin, 1987, 1988a, b; Perez & Mugny, 1987)에 기초한 것이다. 이 연구들에서 얻어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제안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외집단 소수는 내집단 소수보다 훨씬 더 독특하게 인식되고 그에 따라 사적 반응의 경우에는 외집단 소수가 내집단 소수보다 타당화 과정을 더 강하게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집약될 수 있다(참조, Martin, 1988a, b; Mugny & Perez, 1991). 실제로 Martin(1987, 1988a, b)의 연구에서는 반응 유형과 내/외집단 범주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해서, 공적 반응에서는 내집단 소수가 외집단 소수보다 영향을 크게 미친 반면, 사적 반응에서는 외집단 소수가 내집단 소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 바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과 달리,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라

면 반응 유형에 따라 사회적 영향이 달리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가정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이론에서는 동조를 내집단 규범에 대한 사적 수용으로 보기 때문에, 규범적 영향을 통한 공적 순종과 정보적 영향을 통한 사적 수용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한덕용, 1994). 따라서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는 영향원의 집단 범주에 따른 효과가 반응 유형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가정하며, 이 분석은 영향원 수의 함수만을 고려하고 있는 단일 과정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이 상반된 가설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영향원에 대한 내/외집단 범주화와 반응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위에서 개진된 주장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덕용(1994; 정지숙과 한덕용, 1992)의 선행 연구에 근거를 둔 집단 범주화, 영향원 규모 및 반응 유형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의 예언과 일관되게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삼원 상호작용 가설을 설정했다. 우선 앞에서 제시한 내/외집단 범주화 가설에서, 일관되게 내집단 범주화된 조건부터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관되게 외집단 범주화된 조건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사회적 영향이 작아진다고 예언한 바 있다. 또한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가설에서는 다수가 공적 반응에, 그리고 소수는 사적 반응에 영향을 크게 미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언한 바 있다. 이 상호작용 가설에 내/외집단 범주화 가설을 도입하면, 일관되게 내집단 범주화된 조건부터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 및 일관되게 외집단 범주화된 조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영향의 크기는 점차 작아지지만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서, 집단 범주화×영향원 규모×반응 유형의 삼원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예언할 수 있다(집단 범주화, 영향원 규모 및 반응 유형의 삼원 상호작용 가설).

이상에서 진술된 가설들 가운데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 각각의 주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선행 연구들(한덕용, 1994; 정지숙과 한덕용, 1992)에서 지지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내/외집단 범주화가 이루어지고 대인적 타당화의 필요성이 적은 확실 과제 조건에서 이 가설들을 반복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설은 일관-비일관된 내/외집단 범주화 가설 및 이와 관련된 상호작용 가설들이다.

방 법

실험 절차

한덕용(1994)의 연구 절차를 변형하여 이용했다. 우선 연구의 목적이 자극에 대한 지각 패턴을 알아보는 데 있다고 꾸며서 소개하고, 실험실 사정으로 인해서 각각 네 명과 세 명으로 피험자들을 나누어 두 개의 실험실에서 동시에 실험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옆 방에서 네 명이 참여하는 실험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피험자는 7명의 토의 예정 집단에서 마지막 반응자가 되도록 했다. 사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조작된 여섯 사람의 반응 결과를 한 방에서 함께 실험에 참여한 세 명 각자의 화면에 제시해 주는 절차가 이용되었다. 이를 위해, 일곱대의 컴퓨터가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 이 실험에서는 먼저 개인별로 반응을 한 다음에 잠시 후 일곱 사람 모두가 한 방에 모여 집단으로 정답을 결정하는 집단 토론이 있게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집단 대면을 예기케 했으나, 실제로 집단 토론은 실시하지 않았다.

피험자들이 자신의 소속 학과 및 이름을 입력하고 난 후, 본 시행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피험자들의 지각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해 두 가지의 과제를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그런 다음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S-T 지각 과제'와 'Q-P 지각 과제'를 실시했으며, 과제 실시 순서는 순서 상쇄법을 통해서 통제했다. 첫번째 과제 실시 후 약 10초가 경과한 다음, 컴퓨터 분석 결과 피험자 자신은 'T'형으로 분류되었다는 설명문이 세 명 각자의 화면에 제시되었으며, 이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나서 두번째 과제를 실시했다. 그런 다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이번에는 피험자 자신이 'P'형으로 분류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제시해 주었다. 따라서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은 두 과제에서 각각 'T형과 P형'에 속한다고 조작하였다. 이와 함께 범주화의 기준에 능력이나 지위 등의 요인이 혼입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S-T 과제와 Q-P 과제는 각기 다른 심리적 차원과 관련되는 과제들이며 단순히 지각 스타일을 분류하기 위한 과제로서 반드시 어떤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낫다거나 능력이 우수하다는 식의 해석은 할 수 없다"는 설명문을 추가로 제시해 주었다.

본 시행에서는 정답이 2 및 11로 되어 있는 신호 탐지 과제를 이용하여, 100개의 'X'자가 배경이 되는 화면에서 목표 자극인 'O'의 개수를 추정하도록 했다. 이때 프로그램에서 조작한 여섯 명의 신분 명세 및 반응 결과들과 함께, 피험자 자신의 신분 명세 및 반응 결과가 모두 컴퓨터 화면에 공개되는 두번의 시행(공적 반응)과, 피험자 자신을 포함하여 일곱명 모두의 신분 명세 및 반응 결과가 '**' 표시로 가리워져 제시되는 두번의 시행(사적 반응)을 실시했다. 공적 반응과 사적 반응의 순서도 순서 상쇄법을 이용하여 통제했다. 본 시행이 끝난 후, 집단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질문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하고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했다.

실험 설계

내/외집단 범주화 세 수준(내집단 일관 범주화/내/외집단 교차범주화/외집단 일관 범주화)×영향원 규모 두 수준(다수/소수)×반응 유형 두 수준(공적 반응/사적 반응)의 요인 설계에서 반응 유형이 반복 측정된 $3 \times 2 \times (2)$ 혼합 요인설계였다.

피험자

교차 범주화의 두 조건(내집단-외집단/외집단-내집단)을 포함한 총 8개 실험 조건에 128명의 대학생들 16명씩 남녀 동수로 무선 할당하였다.

독립변인 조작

(1) 내/외집단 범주화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 본 시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S-T 지각 과제'와 'Q-P 지각 과제'에서 각 사람들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Main system에 입력되어 있으며, 이제 본 시행이 시작되면 두 과제 모두에서 피험자 자신과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T형/P형)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소속 학과와 이름이 《》속에 묶여서 제시된다는 설명문을 제시해 줌으로써, 영향원의 범주 소속을 일관되게 내집단으로 조작했다. 이와 함께 심리학 분야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과제 각각에서 서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고, 행동 패턴, 성격 등이 대체로 유사한 반면,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특징들에서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문을 함께 제시하여, 사고, 성격, 행동의 유사성 여부로 범주화함

으로써 집단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 이 조건은 다음의 두 조건들로 구분된다. 한 조건(n=16)에서는 《》속에 묶여서 제시되는 사람들이 'S-T 과제'에서는 피험자 자신과 똑같이 'T'형으로 분류되었지만, 이후 'Q-P 과제'를 이용하여 지각 스타일을 한 차례 더 분류했을 때 피험자와는 달리 'Q'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영향원의 집단 범주를 내집단에서 외집단으로 재범주화 했다. 나머지 한 조건(n=16)에서는 영향원의 집단 범주를 외집단에서 내집단으로 재범주화 한 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절차는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과 동일하다. 따라서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은 이들 두 조건의 평균치(n=16)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 이 조건에서는 《》속에 묶여서 제시되는 사람들이 'S-T 과제'와 'Q-P 과제' 모두에서 피험자와 다른 유형(S형/Q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영향원의 범주 소속을 일관되게 외집단으로 범주화 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절차는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과 동일하다.

(2) 영향원 규모

사전에 정답이 2 및 11로 정해진 신호 탐지 과제에서, 다수 영향원은 피험자를 제외한 여섯명의 가공 피험자들 중 오답을 주장하는 네 명(67%)으로, 그리고 소수 영향원은 오답을 주장하는 두 명(33%)으로 조작했다. 모든 조건에서 피험자 자신은 집단으로 토의할 자기 반응을 제시하는 7번째 성원이 되도록 했다.

(3) 반응 유형

공적 반응 조건: 피험자 자신을 포함한 일곱명 모두의 반응이 잠시 후 있을 집단 토론에서 모두 공개된다고 알려주고, 가공 피험자인 여섯명의 신분 명세 및 반응 결과 등이 차례대로 화면에 공개된 다음, 피험자 자신의 학과와 이름이 제시된 상태에서 답을 타자하도록 했다.

사적 반응 조건: 피험자를 포함한 일곱명 모두의 신분 명세 및 반응 결과가 '***'표시로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답을 타자하도록 했으며, 피험자가 답을 타자한 다음, 그 답은 곧바로 '***'표시로 가리워지도록 했다. 사적 반응으로 얻어지는 반응은 연구에 참고 자료로만 이용되며 잠시 후 있을 집단 토론에서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설명문을 함께 제시했다.

중속 측정치

영향원과 의견 차이 값을 중속 측정치로 삼았다. 즉, 정답이 2 및 11로 되어 있는 신호 탐지 과제를 각각 두번씩 네 차례 제시해 주고, 오답 쪽을 주장하는 다수나 소수 영향원의 반응 평균과 피험자가 내놓은 답의 차이 값을 산출했다. 따라서 영향원의 반응 평균과 피험자 반응 간의 차이 값이 작을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답이 2인 두 번의 과제에서 다수 영향원 조건은 네 명의 가공 피험자들이 각각 13, 12, 11, 12로 답했다고 조작했고, 소수 영향원 조건은 두 명의 가공 피험자들이 각각 13, 11로 답했다고 조작되었다. 따라서 정답이 2인 과제에서는, 다수 영향원이 주장하는 반응 평균과 소수 영향원이 주장하는 반응 평균은 모두 12가 된다. 한편, 정답이 11인 두 번의 과제에서 다수 영향원 조건은 네 명의 가공 피험자들이 각각 2, 1, 3, 2로 답하도록 조작했고, 소수 영향원 조건은 두 명의 가공 피험자들이 각각 3, 1로 답했다고 조작했다. 그러므로 정답이 11인 과제에서는 다수 영향원이 주장하는 반응 평균과 소수 영향원이 주장하는 반응 평균은 모두 2가 된다. 단, 모든 시행에서 다수나 소수 영향원이 주장하는 값들은 그 순서를 우선화하여 제시했다.

결 과

독립변인 조작 효과

내/외집단 범주화의 조작 효과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우선 피험자들이 자신과 영향원의 범주 소속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T 과제 및 Q-P 과제에서 피험자 자신과 영향원이 각각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물었다. 이들 두 질문에 대해서, 분석에 이용된 피험자 전원이 실험에서 조작한 바와 일치되게 자신과 영향원의 범주 소속을 정확하게 답했다. 내/외집단 범주화의 각 조건별로 집단 정체성이 달리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향원인 다수나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을 때 "피험자 자신도 그 집단에 속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던 문항에서도(1=전혀 그렇지 않다, 7=전적으로 그렇다) 조작한 대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_{2,90}=123.77, p<.001$). 집단 범주화에 따른 집단 정체성 수준을 측정된 결과,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

에서 내집단 정체성이 가장 강했고(M=4.37), 내/외 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M=3.00)과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M=1.59)에서는 내집단 정체성이 약하거나 정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원 규모에 대한 조작 효과를 보면, “영향원의 수”(F_{1,90}=61.76, p<.001)와 “비영향원의 수”(F_{1,90}=114.84, p<.001)를 묻는 두 개의 문항 모두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영향원에 대한 내/외 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조작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영향원과의 의견 차이 분석

영향원에 대한 내/외집단 범주화, 영향원 규모 및 반응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향원인 다수 및 소수가 주장한 답들의 평균으로부터 피험자 개인이 반응한 값을 뺀 차이 값을 산출했다. 실험 조건별로 이 차이 값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1은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에 따라서 나타난 공적 및 사적 영향의 평균치들을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의견 차이 값의 변량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변량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집단 범주화의 주효과가 유의해서(F_{2,90}=61.20, p<.001),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M=3.84)에서 사회적 영향이 가장 크게 일어났고,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M=6.30) 및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M=8.06)의 순으로 점차 사회적 영향이 적게 일어났다. 이는 내/외집단 범주화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한편, 내/외집단 범주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의 평균을 Scheffe의 사후비교 절차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M=3.84)은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M=6.30)이나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M=8.06)과 비교할 때 모두 유의하게 영향이

표 1. 영향원과의 의견 차이 값 평균(표준편차)

범주화 조건	영향원 규모	공적 반응	사적 반응	전 체
내집단	다수	2.28(1.35)	2.84(1.15)	2.56
일관 범주화	소수	5.28(2.62)	4.94(2.74)	5.11
내/외집단	다수	5.59(1.35)	6.77(1.77)	6.18
교차 범주화	소수	6.91(1.35)	5.92(2.02)	6.42
외집단	다수	7.00(1.22)	8.25(0.71)	7.63
일관 범주화	소수	8.91(1.19)	8.06(1.06)	8.49

표 2. 의견 차이 값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값
A(내/외집단 범주화)	2	574.85	287.43	61.20***
B(영향원 규모)	1	70.93	70.93	15.10***
A*B	2	45.60	22.80	4.85**
S(A*B)	90	422.70	4.70	
C(반응 유형)	1	0.89	0.89	1.13
A*C	2	0.10	0.05	0.07
B*C	1	35.62	35.62	44.93***
A*B*C	2	4.01	2.01	2.53+
S*C(A*B)	90	71.34	0.79	
전 체	191	1226.06		

** p<.01, *** p<.001, +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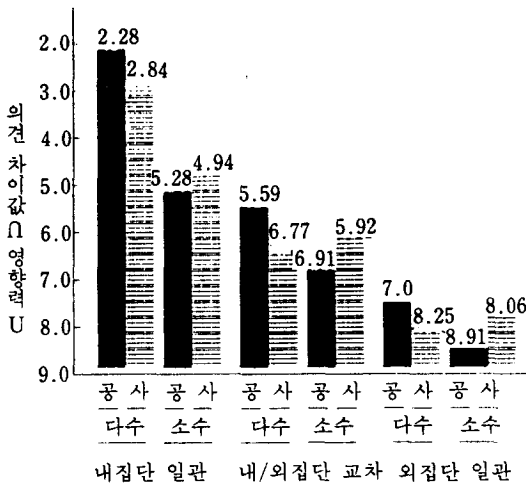


그림 1. 내/외집단 범주화, 영향원 규모 및 반응 유형에 따른 사회적 영향

켰다. 또한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M=6.30)에 비해서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M=8.06)에서 사회적 영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영향원 규모의 주효과가 유의했는데 ($F_{1,90}=15.10, p<.001$), 다수 영향원(M=5.46)이 소수 영향원(M=6.67)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영향원 규모 가설도 지지되었으며, 이는 한덕웅(1994)의 영향원 규모 효과가 반복 검증된 결과로서 영향원 규모 가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자기 범주화 이론, 단일 과정 이론, 그리고 이중 과정 이론의 타당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셋째,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가설이 지지되었다($F_{2,90}=4.85, p<.01$). 이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고,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만 다수(M=2.56)와 소수(M=5.11) 영향의 크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F_{1,120}=15.67, p<.001$),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다수=6.18, 소수=6.42)이나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다수=7.63, 소수=8.48)에서는 다수와 소수 영향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영향원 규모의 효과가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영향원 규모와 영향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해서 ($F_{1,90}=44.93, p<.001$),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된다. 즉, 다수는 사적 반응(M=5.95)보다 공적 반응(M=4.96)에서 영향이 컸으며, 소수는 공적 반응(M=7.03)보다 사적 반응(M=6.31)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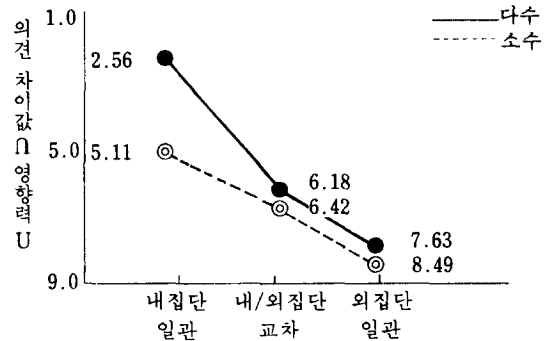


그림 2.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효과

표 3.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 상호작용의 단순 주효과 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값
B at A1	1	103.79	103.79	22.08***
B at A2	1	0.93	0.93	n.s.
B at A3	1	11.82	11.82	2.51
S(A*B)	90	422.70	4.70	

- 1) *** $p<.001$
 2) A - 내/외집단 범주화 B - 영향원 규모
 A1 : 내집단 일관 범주화 B1 : 다수
 A2 :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B2 : 소수
 A3 : 외집단 일관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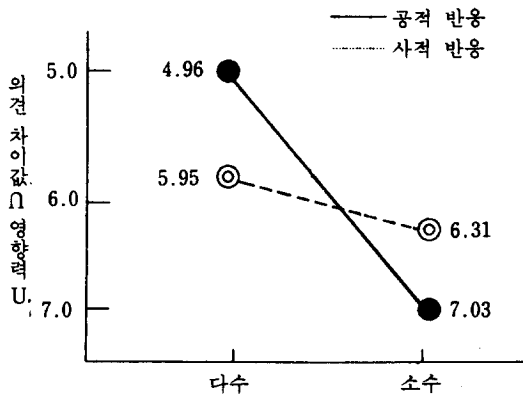


그림 3.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영향이 더 컸다. 이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3과 같고,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다수 영향원과 소수 영향원 조건 모두에서 가설에서 언급한 방향으로 반응 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과에서와 같이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다섯째, 내/외집단 범주화, 영향원 규모 및 반응 유형의 삼원 상호작용 가설은, 예언과 유사한 방향의 추세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F_{2,90}=2.53, p<.10$). 참고로 단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내집단 일관 범주화,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및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모두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BC at A1, $F_{1,90}=4.15, p<.05$; BC at A2, $F_{1,90}=23.81, p<.001$; BC at A3, $F_{1,90}=22.19, p<.001$). 내/외집단 범주화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다수 및 소수 조건 모두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AC at B1, $F_{2,90}=1.14, n.s$; AC at B2, $F_{2,90}=1.15, n.s$). 반면에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적 반응에서만 유의했다(AB at C1, $F_{2,90}=1.23, n.s$; AB at C2, $F_{2,90}=4.04, p<.05$). 이는 집단 범주화의 성질과 상관없이 다수의 공적 영향과 소수의 사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다른 범주화 조건들에서와 달리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만 다수의 사적 영향($M=2.84$)이 소수의 사적 영향($M=4.94$)보다 크게 나타난 데 기인된 결과로 보인다.

논 의

영향원과의 의견 차이 값

오답 쪽을 주장한 영향원들의 반응 평균과 피험자 개인 반응의 차이 값이 작을수록 사회적 영향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석했는데, 이 의견 차이 값으로 얻은 결과들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집단 범주화의 효과가 유의했으며, 구체적으로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이 가장 크게 일어났고,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의 순으로 사회적 영향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 영향원이 외집단 영향원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유발하며, 이 영향 과정의 기저에는 내집단 동일시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자기 범주화 이론의 지지 증거가 된다. 또한 한덕웅(1994; 정지숙과 한덕웅, 1992)의 선행 연구의 내집단 정체성 조건에서 얻은 결과와도 일치된다. 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영향원이 일관되게

표 4.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 상호작용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값
C at B1	1	23.90	23.90	30.25***
C at B2	1	12.62	12.62	15.97***
C*S(A*B)	90	71.34	0.79	

1) *** $p<.001$

2) B - 영향원 규모 C - 반응 유형
 B1 : 다수 C1 : 공적 반응
 B2 : 소수 C2 : 사적 반응

내집단으로 반복 범주화된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큰 점이다. 구체적으로, 소수인 경우에도 내집단으로 일관되게 범주화된 경우에는 외집단 다수의 영향원보다 공격 반응과 사적 반응에서 영향력이 모두 컸다.

특히 주목할만한 또 다른 결과는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의 두 조건 가운데 외집단-내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보다는 사회적 영향이 적게 유발되었지만, 내집단-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이나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보다 사회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 점이다. 또한 내집단-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에서는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이나 외집단-내집단 범주화 조건보다 사회적 영향이 적게 유발되었지만,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보다 사회적 영향이 크게 유발되었다. 이 결과는 Hagendoorn과 Henke(1991)의 연구에서 인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 범주와 사회적 지위 범주를 교차시켰을 때 나타난 집단간 차별 패턴과 일치되며, 또한 외집단에서 내집단으로의 재범주화를 통해 집단간 차별이 유의하게 감소됨을 보고한 Jackson과 Sullivan(1987)의 연구 결과와도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종속 측정치로 다수나 소수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외집단 범주화 효과에 관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차 범주화 상황에서 전반적 차별 정도의 감소를 가정하고 있는 Deschamps와 Doise(1978)의 주장보다, 집단간 차별에서의 가산적 패턴을 명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Brown과 Turner(1979)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지지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정체성 관점 및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내집단 동일시가 교차 범주화 맥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차 범주화 조건들만을 비교할 때 주목할 점은 내/외집단 범주를 교차시킨 순서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이다. 즉, 영향원이 내집단에서 외집단으로 교차 범주화된 조건보다 외집단에서 내집단으로 교차 범주화된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이 더 크게 유발되었는데, 이 결과는 두 범주에서 영향원의 범주 소속을 교차시키게 되면 최신성 효과(recency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기억에 설명 근거를 두는 계열 위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독립변인 조작 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차 범주화 했을 때의 내/외집단 범주화 조작을 피험자들이 사실대로 모두 기

억함으로써, 오히려 교차 범주화 상황에서는 향후 직접 상호작용하게 될 집단의 최종 범주가 우세하게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호 작용하게 될 집단이 피험자의 내집단인지 아니면 외집단인지가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해석은 특정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태도 및 행동에서의 편파들이 기존 범주 구분과는 다른 범주로 공통 범주 소속을 강조하거나 상위 내집단으로 재범주화를 통해서 충분히 역전되는 현상들과도 일치된다.

한편, 영향원이 일관되게 피험자의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 얻은 결과는 한덕웅(1994)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덕웅(1994)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범주에서 일회의 범주화를 통해서 내집단 정체성이 형성된 조건과 내집단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했다. 반면에, 이 연구의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원이 피험자의 내집단임을 반복해서 강조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용된 과제가 한덕웅(1994) 연구의 확실 과제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조건들간에 사회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단일 범주화 조건과 일관되게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 다수 및 소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 처럼 다수나 소수의 영향에서 내집단 동일시가 핵심 요인이 된다면, 영향원이 일관되게 내집단으로 반복해서 범주화된 조건에서는 일회의 내집단 범주화 조건에 비해서 내집단 특출성이 두드러져서 규범으로부터 이탈하기가 더욱 어려우리라고 가정된다. 따라서 영향원 규모에 관계없이 내집단으로 일회 범주화 했을 때보다 일관되게 내집단으로 반복 범주화된 조건에서 사회적 영향이 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범주화 이론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내집단 범주화의 반복 여부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소수 영향의 경우 Moscovici 등이 핵심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관성 요인을 고정시켜 놓고, 소수 영향원의 집단 범주만을 반복해서 내집단으로 제시하기만 해도 소수 영향이 충분히 유발됨을 보일 수 있다면, 자기 범주화 이론에 대한 부가적 지지 증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반면에 Moscovici 등이 주장하는 이중 과정 이론이 타당하다면, 반응 유형이나 행동 스타일, 그리고 주장의 일관성 등과 같은 변인을 고정시켜 놓은 채, 단순히 영향원의 내집단 소속만을 반복해

서 제시해서는 다수나 소수 영향에 특별히 능가적 효과를 지닌다고 예언하기 어렵다.

이 점에 착안하여 내집단 범주화의 반복 여부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덕웅(1994) 실험의 내집단 범주화 조건과 이 연구의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을 두 수준으로 하여 내집단 반복 여부×영향원 규모×(반응 유형)의 2×2×(2) 변량분석을 실시했다(N=64). 그 결과,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 가정되는 바와 달리, 내집단 범주화의 반복 여부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F_{1,60}=3.97, p < .05$). 이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내집단 범주화의 반복 효과는 다수 영향원 조건에서만 유의했을 뿐(내집단 일회 범주화 조건=2.56, 내집단 반복 범주화 조건=4.56; $F_{1,60}=49.60, p < .001$), 소수 영향원 조건에서는 두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내집단 일회 범주화 조건=4.60, 내집단 반복 범주화 조건=5.11, $F_{1,60}=1.98, n.s.$). 이 결과는 다수 영향원 조건에서만 내집단 반복 범주화 효과가 가산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둘째, 영향원 규모의 효과가 유의해서 다수가 소수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유발했다. 이 결과는 소수보다 다수가 사회적 영향을 크게 유발했던 기존 연구 결과들(한덕웅, 1994; 정지숙과 한덕웅, 1992; Clark & Maass, 1988b; Latane & Wolf, 1981; Sachdev & Bourhis, 1984)과 일치된다. 이 결과는 영향원 규모 가설이 성립될 수 있는 단일 과정 이론, 이중 과정 이론 및 자기 범주화 이론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는 다수가 소수보다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일으킨 반면, 다른 범주화 조건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일으킨 사회적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내집단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된 조건에서만 영향원 규모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향원 규모와는 관계없이 동일시하는 내집단 규범에 의해서 사회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자기 범주화 이론은 영향원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영향원의 사회적 범주와 영향원 규모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영향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덕웅(1994)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사회적 영향을 다루

었던 연구들은 어떤 형태로든 내집단 정체성이 실제로 강하게 형성된 조건의 다수 또는 소수의 영향을 다루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반복해서 제기된다.

넷째,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다수는 사적 반응보다 공적 반응에서, 소수는 공적 반응보다 사적 반응에서 사회적 영향을 더 크게 유발했다. 이처럼 반응 유형에 따라서 다수와 소수 영향이 각기 달리 나타난 결과는 이중 과정 이론의 직접적인 지지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선행 연구들(한덕웅, 1994; 정지숙과 한덕웅, 1992; Moscovici & Personnaz, 1980, 1986; Personnaz, 1981)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발견된 바와도 일치된다.

다섯째, 내/외집단 범주화, 영향원 규모 및 반응 유형의 삼원 상호 작용은 예언된 방향과 일치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과 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외집단 범주화의 성질에 관계 없이, 영향원 규모와 반응 유형의 상호작용은 모든 집단 범주화 조건에서 유의했다. 이는 Moscovici 등이 주장하는 사회적 영향의 이중 과정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공적 반응과는 달리, 사적 반응 조건에서는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이 결과는 일관되게 내집단 정체화된 조건에서 다수(M=2.84)와 소수(M=4.94)의 영향 차이가 현저한 데 비해서 외집단 정체화된 조건에서 다수(M=8.25)와 소수(M=8.06)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데 크게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관되게 내집단으로 범주화된 조건에서 다수의 영향이 현저하게 커진다는 사실로부터, 내집단 범주화와 다수 영향이 가산적으로 작용하여 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배경을 장차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실증적으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나타나는 세부 원인들이 알아보기 위한 시도로서 한덕웅(1994)의 연구에서 제안된 영향원 귀인, 대인 갈등과 인상 관리 및 영향 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실험 후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을 얻었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우선 영향원 귀인 요인으로는 영향원에 대한 확고 부동성, 독립성, 신뢰성, 호감, 확실성 및 유용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조사되었다. 대인 갈등 및 인상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고립감 회피, 체면 유지, 배척감 회피 및 불편한 인간 관계 회피를 묻는 문항들이 조사되었으며, 영향 과정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영향과 비

교 과정, 정보적 영향과 타당화 과정에 관련된 응답을 얻었다. 이 세부 원인들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집단 범주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얻어진 요인들을 살펴보면,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다른 조건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고립감 회피(내집단 일관 범주화=2.19,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1.48, 외집단 일관 범주화=1.34; $F_{2,90}=13.08$, $p<.001$), 체면 유지(내집단 일관 범주화=1.81,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1.56, 외집단 일관 범주화=1.34; $F_{2,90}=4.00$, $p<.05$) 및 배척감 회피(내집단 일관 범주화=2.84, 내/외집단 교차범주화=2.00, 외집단 일관 범주화=1.56; $F_{2,90}=24.22$, $p<.001$) 등이었다. 이 결과는 내집단으로 일관되게 범주화된 영향원은, 다른 범주화 조건의 영향원보다, 집단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막는 동조 압력이나 대인 갈등 관리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른 집단 범주화 조건들에 비해서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는, 영향원의 독립성 지각(내/외집단 교차 범주화=3.55, 외집단 일관 범주화=3.37, 내집단 일관 범주화=2.72; $F_{2,90}=6.48$, $p<.01$), 신뢰성 지각(내/외집단 교차 범주화=3.11, 내집단 일관 범주화=3.00, 외집단 일관 범주화=2.41; $F_{2,90}=5.32$, $p<.01$) 및 유능성 지각(내집단 일관 범주화=3.62,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3.44, 외집단 일관 범주화=2.87; $F_{2,90}=4.40$, $p<.01$)에서 낮은 평정을 보임으로써,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외집단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영향원 집단 범주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주로 내집단 영향원에 부동의 함으로써 유발되는 고립감이나 체면 손상, 그리고 배척감 등을 적극 회피하려는 동기 요인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내집단으로 일관되게 범주화된 영향원($M=1.91$)은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M=1.34$)이나 외집단 일관 범주화($M=1.31$) 조건의 영향원보다 정보적 영향을 크게 미쳤다($F_{2,90}=9.59$, $p<.001$).

영향원 규모에 따라서 영향의 세부 원인들에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다수는 호감(다수=3.56, 소수=2.65; $F_{1,90}=16.75$, $p<.001$) 및 유능성(다수=4.05, 소수=2.57; ($F_{1,90}=47.39$, $p<.001$) 요인에서 소수보다 높게 평정되었다. 또한 고립감 회피(다수=1.85, 소수=1.49; $F_{1,90}=7.79$, $p<.01$), 체면 유지(다수=1.74, 소수=1.41; $F_{1,90}=6.05$, $p<.05$) 및 비

교 과정(다수=2.31, 소수=1.69; $F_{1,90}=18.65$, $p<.001$)에서 다수는 소수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소수는 확고 부동성(소수=3.74, 다수=2.47; $F_{1,90}=33.98$, $p<.001$), 독립성(소수=3.91, 다수=2.52; $F_{1,90}=52.45$, $p<.001$) 및 확실성(소수=3.40, 다수=2.79; $F_{1,90}=6.31$, $p<.05$) 요인들에서 다수보다 높게 평정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타당화 과정에서도 소수는 다수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세를 보였다(소수=3.58, 다수=3.94; $F_{1,90}=3.49$, $p<.07$). 이 결과에서 다수 및 소수 영향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예, 한덕용, 1994; Bassilli & Provencal, 1988; Maass & Clark, 1984; Moscovi, 1980)에서 제안된 영향원 귀인 요인들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Moscovici(1980)의 소수 영향에 관한 귀인적 분석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내/외집단 범주화와 영향원 규모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미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영향원이 내집단으로 일관되게 범주화된 조건(소수=3.50, 다수=1.94; $F_{1,90}=22.45$, $p<.001$)과 교차 범주화된 조건(소수=4.59, 다수=2.50; $F_{1,90}=40.31$, $p<.001$)에서 모두 소수가 다수보다 독립성이 높다고 지각되었다. 그러나 결과에서 살펴본 대로 실제적 영향력을 보면, 소수가 다수보다 유의하게 큰 영향력을 미친 조건은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된 조건의 사적 반응 조건 뿐이었다. 따라서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된 조건에서 소수의 독립성 지각에 따라 사적 반응에서만 소수가 다수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소수($M=4.31$)가 다수($M=2.12$)보다 확실성 지각에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F_{1,90}=27.74$, $p<.001$),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는 확실성 지각에 미치는 다수($M=3.25$)의 영향력이 소수($M=2.12$)보다 컸다($F_{1,90}=15.90$, $p<.001$). 그러나 이 조건들 가운데 실제 영향력이 확실성 수준의 지각과 일치되는 결과는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공적 영향이 소수보다 다수에서 큰 점 뿐이었다. 그러므로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는 확실성 수준과 일치되지 않게 실제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체면 유지 요인에서는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만 다수($M=2.19$)가 소수($M=1.44$)보다 크게 영향을 미쳤고($F_{1,90}=10.23$, $p<.01$),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 조건이나 외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는

다수와 소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정보적 영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는 다수($M=2.19$)가 소수($M=1.62$)보다 정보적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F_{1,90}=6.84, p<.05$), 다른 두 조건에서는 다수와 소수가 미친 정보적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했던 내집단 정체성과 다수가 가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경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타당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내집단 일관 범주화 조건에서 소수($M=4.56$)가 다수($M=3.44$)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 반면($F_{1,90}=11.77, p<.01$), 나머지 두 조건에서는 다수와 소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와 함께 이 연구에서 소수의 정보적 영향은 내집단 일관 범주화($M=1.62$) 조건에서 가장 컸고, 내/외집단 교차 범주화($M=1.28$) 및 외집단 일관 범주화($M=1.25$) 조건에서 유사하게 작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한덕용(1994)의 제안대로, 타당화 과정을 중심으로 소수의 정보적 영향을 강조하는 이중과정 이론은 소수의 내집단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조건에서 지지되는 이론일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정지숙, 한덕용(1992). 확실/불확실 과제 수행에서 다수와 소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2), 109-122.

한덕용(1990).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 24-58.

한덕용(1994). 내집단 정체성, 영향원 규모, 및 과제 모호성에 따른 사회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8(1), 191-203.

Aebischer, V., Hewstone, M., & Henderson, M. (1984). Minority influence and musical preference: Innovation by conversion not coerc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23-33.

Bassili, J.N., & Provencal, A. (1988). Perceiving minorities: A factor analytic approa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1), 5-15.

Brown, R.J., & Turner, J.C. (1979). The cross-categorization effect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371-383.

Chaiken, S. & Stangor, C. (1987).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575-630.

Clark, R.D. (1988). On predicting minority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515-526.

Clark, R.D., & Maass A. (1988a). Social categorization in minority influence: The case of homosex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47-364.

Clark, R.D., & Maass, A. (1988b). The role of social categorization and perceived source credibility in minority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81-394.

Commins, B., & Lockwood, J. (1978). The effects on intergroup relations of mixing Roman Catholics and Protestant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 383-386.

Deschamps, J.C. (1977). Effect of crossing category membership on quantitative judg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 122-126.

Deschamps, J.C., & Doise, W. (1978). Crossed category membership in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141-158, London: Academic Press.

Gaertner, S.L., Mann, J., Murrell, A., & Dovidio, J.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2), 239-249.

Hagendoorn, L., & Henke, R. (1991). The effect of multiple category membership on intergroup evaluations in a north Indian context: Class, caste, and relig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47-260.

- Hewstone, M., Islam, M.R., & Judd, C.M. (1993). Models of crossed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79-793.
- Hogg, M.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157-185. Routledge, New York.
- Jackson, C.A., & Sullivan, L. (1987). The in-group favorability bias in the minimal groups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7 (5), 461-472.
- Latane, B., & Wolf, S. (1981). The social impact of majorities and minorities. *Psychological Review*, 88 (5), 438-453
- Levine, J.M. (1989). Reaction to opinion deviance in small groups. In P.B. Paulus (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187-23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ass, A., Clark, R.D. (1984). Hidden impact of minorities: Fifteen years of minority influenc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5 (3), 428-450.
- Martin, R. (1987). *Minority influence and social categorization*. Open University Press.
- Martin, R. (1988a). Ingroup and outgroup minorities: Differential impact upon public and private respons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9-52.
- Martin, R. (1988b). Minority influence and social categorization: A re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69-373.
- Moscovici, S. (1980). Toward a theory of conversion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pp.149-202), New York: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5). Innovation and minority influence. In S. Moscovici, G. Mugny, & E. Van Avermaet (Eds.), *Perspective on minority influence* (pp.9-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scovici, S., & Lage, E. (1976). Studies in social influence III: Majority versus minority influence in a group.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149-174.
- Moscovici, S., & Personnaz, B. (1980). Studies in social influence: Minority influence and conversion behavior in a perceptual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70-282.
- Moscovici, S., & Personnaz, B. (1986). Studies on latent influence using spectrometer method: Psychologization effect upon conversion by a minority and a major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345-360.
- Mugny, G. (1982). *The power of minorities*. London: Academic Press.
- Mugny, G., Kaiser, C., Papastamou, S., & Perez, J.A. (1984). Intergroup relations, identification, and social influ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317-322.
- Mugny, G., & Papatamou, S. (1982). Minority influence and psycho-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379-394.
- Mugny, G., & Perez, J.A. (1991). *The social psychology of minority influence*, 1-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n, B. (1983). Operationalizing the effect of the group on the individual: A self-attention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295-322.
- Nemeth, C. (1986). Different contributions of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Psychological Review*, 93, 23-32.
- Nemeth, C., Mayseless, O., Sherman, J., & Brown, Y. (1990). Exposure to dissent and recall of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29-437.
- Perez, J.A., & Mugny, G. (1987). Paradoxical effects of categorization in minority influence: When being an outgroup is advantag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 Rehm, J., Lilli, W., & Van Eimeren, B. (1988). Reduced intergroup differentiation as a result of self-categorization in overlapping categories: A quasi-experi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75-379.
- Sachdev, I., & Bourhis, R.Y. (1984). Minimal majorities and minorit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35-52.
- Tanford, S., & Penrod, S. (1984). Social influence model: A formal integration of research on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95 (2), 189-225.
- Tajfel, H. (Ed.)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Ed.)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 Turner, J.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J. Lawler (Ed.), *Advance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2, Greenwich, Conn.: JAI Press.
- Turner, J.C., Hogg, M.A., Oakes, P.J., Reicher, S.D.,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19-88. Oxford and New York: Blackwell.
- Turner, J.C., & Oakes, P.J. (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B. Paulus (Ed.),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2nd ed., pp.233-27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anbeselaere, N. (1987). The effect of dichotomous and crossed social categorizations upon intergroup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143-156.
- Wilder, D.A. (1978). Reduction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through individuation of the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61-1374.
- Wilder, D.A. (1986). Social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creation and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L. Berkowitz (Ed.),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9, pp.291-355), New York: Academic Press.

Effects of In/Out Group Categorization and Size of Sources on Social Influences

Hoon-Seok Choi and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relative validity of the theories concerning social influence of majority and minority. Under the conditions of consistent ingroup categorization, crossed categorization (ingroup-outgroup, outgroup-ingroup), and consistent outgroup categorization, the public and private influence were measured. A 3 (group categorization) \times 2 (size of sources) \times 2 (response type) mixed factorial design was used with the last factor as a within-subject variable. Sixteen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condition including two conditions of crossed categorization. Since the task certainty was held in a relatively high level, it was assumed that interpersonal validation would be possibl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social influence was highest in the consistent ingroup categorization condition, and the remaining conditions were ordered as outgroup-ingroup, ingroup-outgroup, consistent outgroup categorization condition. This was interpreted as a supportive evidence for the social identity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Second, majority exerted more influence on the public response than the private response, but a reverse trend was found in the minority condition. Thus, dual process theory which assume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source size and response type was supported. This result is also consistent to the previous studies (Hahn, 1994; Jung & Hahn, 1992).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categorization and response typ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is result was interpreted as a supportive data for the social identity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Finally, a 3-way interaction effect among group categorization, size of sources, and response type was not significant, but the overall trend was found as predicted.